우굴로

우굴로라는 만주어가 있다고 한다. 뜻은 가죽신이다. 그 유래를 살펴보면 이러하다.

"고구려에 우굴로란 이름의 임금이 있었다. 소년 시절에 매우 불우하여 정처없이 사방을 떠돌아 다녔다. 요동 땅에 이르러서는 손수 가죽신을 만들어 신고 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죽신을 우굴로라 부르게 되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왕은 가는 길목마다 풀씨를 뿌리며 돌아 다녔다. 왜 그가 그렇게 했는지 왕이외에는 아무도 몰랐으나 뒷날 알고보니 깊은 뜻이 있었다. 사람들은 왕이 씨를 뿌려 자란 풀을 역시 우굴로라고 불렀다"

이 우굴로라는 고구려왕이 누구인지 기록을 찾아 보면 美川王이었다. 미천왕은 본시 이름을 乙弗이라 하였고 매우 불우한 소년시절을 보냈다고 한다.

왜 그가 불우한 소년시절을 보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그런데 이상하게도 왕은 가는 길목마다 풀씨를 뿌리며 돌아다녔다. 왜 그가 그렇게 했는지 왕이외에는 아무도 몰랐으나 뒷날 알고보니 깊은 뜻이 있었다.

사연이 있었다. 고구려 烽上王이란 임금은 폭군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봉상왕이 바로 미천왕의 큰 아버지였다.

미천왕이 아직 어릴 때 아버지가 죽었다. 그냥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형님인 봉상왕의 미움을 사서 죽임을 당한 것이다. 봉상왕은 매우 의심이 많아서 혹시 동생이 왕위를 빼앗지나 않을까 하는 의구심에서 그런 끔찍한 일을 벌였던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봉상왕은 시기심이 많고 교만하여 왕위에 오르자마자 삼촌을 죽인 인물이다. 삼촌은 달고(達賈)라는 유명한 장수였다. 달고는 慕容族의 반란을 진압하여 백성들의 신망을 한 몸에 받고 있었는데 태자때부터 이것을 시기하던 봉상왕은 즉위하자마자 누명을 뒤집어 씌워 삼촌을 사형에 처하고 말았다.

이런 봉상왕이고 보니 동생이라고 해서 그냥 둘리 없었고 조카인 을불에게도 위험이 닥쳐 왔다. 그러나 을불은 이때 재빨리 몸을 숨겨 목숨을 건졌으나 요동 땅을 배회하는 거지 왕자가 되고 말았다.

요동은 본시 고구려 땅이었으나 얼마 전 동천왕때에 중국의 위나라 군사들의 침략을 받아 잃어 버렸다. 말하자면 잃어버린 옛 땅으로 언젠가는 되찾아야 할 失土였던 것이다. 을불은 거지와 다름없는 옷차림을 하고서 이 집 저 집 구걸하며 돌아다녔다. 사람들은 거지 왕자

를 보고 한없이 동정하였고「우굴로」란 별명도 그래서 나온 애칭이었다.

한편 고구려에서는 봉상왕이 날로 교만하여져 백성의 원한을 사고 있었다. 때마침 농촌에 흉년이 들어 어느 해에는 人相食하는 참상까지 벌어졌다. 그런데 봉상왕은 그런 백성들의 고생을 아랑곳하지 않고 웅장한 궁궐을 짓는데 여념이 없었다. 백성들은 기아선상에 허덕이는데 임금은 집짓는데만 정신이 없으니 신하들의 마음은 괴롭기만 했다. 그러나 아무도 왕에게 바른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

충신 倉助利는 참다 못해 왕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다.

"기아에 허덕이는 백성을 버려두고 토목공사에만 열중하는 것은 나라의 아버지로서의 도리가 아닙니다. 더우기 나라 밖에서는 고구려를 노려보고 있는 적이 있읍니다. 제발 궁성 짓는 일을 중단하여 주십시요"

옛날에는 전쟁과 토목공사는 亡國의 근원이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으나 창조리 처럼 왕에게 직고하는 용기의 소유자는 없었다. 창조리는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바른 말을 했던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봉상왕은 진노하였다.

"그대는 도시 백성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인기전술을 쓰는 것이 아닌가. 임금이 백성의 존경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궁궐이 커야 하는 법인데 공사를 중단하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러나 죽음을 각오한 창조리는 물러서지 않고 다시 간언하였다.

"폐하! 임금은 백성을 아들처럼 사랑하셔야 하며 신하는 임금을 어버이처럼 받들어 충성을 받쳐야 합니다. 한 나라 재상으로서 신은 충성을 다하여 말씀드렸을 뿐 결코 백성의 칭찬을 들으려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 소리를 듣자 봉상왕은 크게 웃었다. 웃으면서,

"창조리 그대가 진정 나를 위하여 죽으려거든 다시는 그런 말은 입밖에 내지 말라"

어전에서 물러나온 창조리는 마침내 거사하기로 결심하고 어디론가 사라져 없어진 을불을 극비리에 찾도록 했다. 을불을 찾아 나선 창조리의 밀사가 시골 어느 마을에 이르렀을 때 한 남루한 옷차림의 청년이 관가에 절도범으로 잡혀와 있었다. 사연을 들어보니 소금장수로 어느 노파에게 소금을 팔다가 몰래 노파의 신발 한짝을 훔쳤다는 죄목이었다. 그러나 노파는 덤으로 소금을 더 받으려다가 실패하자 소금장수가 미워 푸대에다 몰래 자기 신발을 넣어 도적으로 몰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창조리의 밀사가 청년의 얼굴을 가만히 살펴 보니 그 눈매하며 생김새가 예사 인물이 아님을 알았다. 틀림없이 왕자이리라 믿고 청년앞에 엎드려 큰절을 했다. 청년은 놀라서 "왜 이러십니까. 저는 고아로서 머슴살이를 하다가 소금장수로 돈이나 벌어 볼까 생각하는 천한 백성입니다. 제가 [illegible]係이라니요 말도 안됩니다"

혹시나 자기 신분이 탄로나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생각한 을불은 시침을 떼고 그렇게 말했으나 밀사의 간곡한 말을 듣고 나서야 자신이 을불이란 사실을 토로했다.

밀사와 같이 서울에 돌아온 을불은 창조리와 만나 아버지를 죽인 원수 봉상왕을 폐위시키는 거사에 동의하였다. 때는 서기 300년 9월이었다. 봉상왕이 사냥하러 떠나는 것을 기회로 창조리 일당은 갑자기 왕을 덮쳐 사로 잡았다.

창조리에게 국새를 받은 미천왕 을불의 머리에는 지난날의 고생이 눈앞에 선하였다. 고구려가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요동 땅을 차지하여야 한다는 신념이 가슴을 메웠다. 미천왕은 재위 32년간 요동 땅을 되찾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 그가 요동을 돌아다니며 심어논 우굴로란 풀은 바로 이날을 위한 원대한 계획의 하나였던 것이다.

박 성 수

-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부교수
- 한국사학회 이사
-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실장
- 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인문연구실장